

2/17/19

설교 제목: 악인의 종국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7 장 1-10 절

- (에 7:1)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 (에 7:2)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 (에 7: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 (에 7:4)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절관주** 에 3:9
- (에 7:5)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 (에 7:6)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 (에 7:7)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
- (에 7:8)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절관주** 에 1:6
- (에 7:9)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절관주** 에 5:14
- (에 7:10)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잠언 11 장 8 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고 한 말씀의 성취를 봅니다.

자신에게 엮드려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개와 그의 민족 유다를 멸절시키고자 갖은 계책을 도모했던 하만이 결국 모르드개를 달아매어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모르드개 대신 달려 죽습니다.

본문은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아하수어로 왕과 하만이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 7:1)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또 다시 소청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왕이 세 번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 7:2)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하수어로 왕은 애초부터 잔치보다는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 앞에 나아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가 지금까지 두 번이나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 꺼내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로 하여금 안심하고 말할 수 있도록 다소 과장된 허풍까지 떨니다.

(에 7: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 7:4)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허풍이 섞인 말이긴 하지만 왕의 말을 통해 왕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지금 왕에게 청을 한다면 왕이 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왕에게 자신의 소청을 말하는데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합니다.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먼저 부각시키고 후에 자신의 민족을 언급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고 말한 것은 하만이 은 일만 달란트로 유다 민족을 학살하고자 한 것을 빚댄 것이고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는 왕의 조서에 쓰여진 대로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어서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일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노예로 팔릴망정 살아있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되지 그들을 다 죽여 버리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디에서인가 들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왕은 아직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조서를 직접 꾸민 하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왕 앞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하여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추궁합니다.

(에 7:5)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 7:6)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담대히 그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제서야 왕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 말을 꺼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슴 졸여야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왕이 하만의 손을 들어 준다면 에스더도 유다 민족도 끝장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왕이 소청을 물었을 때 2 번씩이나 대답하기를 미루면서 적절한 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답을 한 것입니다.

하만은 왕과 왕후 에스더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은 사태를 파악하고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에 7:7)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간 이유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면 왕은 왕후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자신이 신임했던 하만이었다는 사실에 무척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경솔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느끼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 지를 놓고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왕이 후원으로 들어 간 사이에 하만은 왕후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이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에 7:8)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런데 때 마침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왕은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리가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형수들에게 썼던 관습으로 하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과 인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하만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누구도 그를 변호해 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짓밟아 버립니다.

(에 7:9)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그동안 모르드개만 빼고는 궁중에 있던 모두가 하만에게 잘보이기 위해 엎드려 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왕의 분노를 사서 왕에게 버림을 받게 되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곁에 남는 것은 고사하고 하르보나라는 왕의 내시는 불 난 집에 부채질까지 합니다. 하르보나는 왕에게 하만이 충성된 모르드개를 처형하고자 계획했던 사실을 알려 바칩니다. 하르보나 내시의 말을 들은 왕은 즉각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가 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왕이 역대 일기를 통해 모르드개의 공적을 인식하기 전에 이 일이 발생했다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역대 일기를 통해 모르드개의 공적을 알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고 있던 차에 이 일이 터져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하심이라고 밖에 다른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에 7:10)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개와 유다 민족은 풍전등화와도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여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창세 전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현재적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결국은 승리로 마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이 찰 때에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집행 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적이고 주권적 손길로 세상 역사 속에서 부단히 종말의 완성을 향해 우리의 삶을 섭리적으로 주관해 가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날을 바라며 사는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